



삼마·하미마을 표지판.



사하촌에서 차를 파는 이윤하(사진 왼쪽)씨의 가게.



범어사 일주문인 조계문.



대웅전 앞의 삼층석탑(보물 제250호·사진 위)과 휴휴정사 가는 골목.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34 금정산 범어사

부처님 덕분에 '고른 사람' 돼 가요

소설 '사하촌' 뒷 이야기

민족문학의 큰 별 요산 김정환 선생



민족문학의 큰 별 요산 김정환 선생(1908~1995)은 '사하촌'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설은 1930년대의 보광사라는 절을 배경으로, 스님들과 사하촌 사람들의 갈등을 그려냈다. 그런데 요산의 고향이 범어사 아래의 남산동이고, 그는 범어사와 인연이 깊었다.

문학관의 지킴이이며, 요산의 사촌 동생인 김재한(72·사진)은 "요산은 불교와는 아무 감정이 없다"라면서 '사하촌'이 가족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파네 할아버지(송호당 김용우)가 범어사 스님이었는데, 송호당 할아버지가 범어사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시다. 요산이 일본 유학할 때, 요산 학비를 송금해 준 사람이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학비를 송금해 주던 송호당이 어느 해 갑자기 송금을 중단해 버린다. 결국 요산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3년 중퇴를 하고 만다. 거기다 늙고 병든 '송호당'의 양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증오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쓴 글이 사하촌이라고 봅니다."

김용의 말이다. 요산의 다른 작품인 <추산당과 결사람>에 나오는 내용이 이러한 가족사를 그린 것이라 한다.



요산의 친필원고

"내 친구 둘 있어. 고양이하고 새. 고양이는 지난 설날 장사하러 오니까, 와서 안 가."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커피나 꿀차 같은 것을 파는 이윤하(56)씨는 고양이 한 마리와 곤잘박이를 벗으로 두고 있다. 꿀차를 마시는데 몇 마리의 벌이 종이컵에 달라붙는다. 이씨가 새로 꿀차를 타서 주며 마시던 잔을 평상 위에 두라고 한다.

"벌도 좀 먹어야지요." 그 말에 동의한 나는 마시던 잔을 내려놓고 새 잔을 받는다. 범어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이라서인지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씨가 보여줄 것이 있다면 손바닥에 옥수수 알갱이 두어 개를 엮는다. 숲 쪽을 향해 손을 내밀자, 새 한 마리가 재빨리 날아와 모이를 물어간다. 신기해하며 보았더니, 내게도 해보라 한다. 한참 만에 놀라움 정도의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지더니, 새가 다녀갔다. 이상한 황홀감이 온몸이 찌릿해졌다.

차를 더 권하는 이씨를 뒤로하고 삼마마을로 향한다. 범어사 아래에는 삼마마을과 하미마을이 있다. 행정구역상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에 속하지만, 산골이 몇 개를 돌아야 하므로 시내와는 조금 떨어져 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은 식당이나 찻집이 되어 있다.

"가구 수는 스물 한 가구. 아니, 스물 한 가구 안 되겠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방자연(80)씨와 고종순(63)씨 사이에 끼여든다.

"옛날에는 남의 농사짓고 그랬어요. 밭도 없고 그랬지."

"모퉁(모퉁이)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다 가리고, (거처를 삼고) 여자는 밥. 남자들은 물레방아 찧고(뿔고) 뿔감도 하고, 그레 살았는 갑습니다. 절로 인해 먹고 사니까, 얼추열주 됐는 갑니다."

"그러니까네 스님들 가족도 이 동네서 살고, 지금 호수 그대롭니다. 마을 사람들이 천막으로 오두막 가리고 이레 살았죠."

"여, 뭐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 절에 고을살이 하고, 어디 저어기 농사지는 것은 운반해야 하

니까, 짚 밭에 가 밭 매주고 이레다. 범어사 나가 갖고 장사하 해봐야 딱 거 있능겨. 밭 해가 밭도 해주고, 산에 가 나물 해 주고, 박 대통령 할 때 너머 단속이 심하잖아요. 그 때는 범어사 주차장 있는 데까지 가서 호객해 갖고, 방도 내주고, 도토리묵도 산에 가 주와 다 해 팔고, 닭도 잡아 주고, 그레 장사가 처음이예요."

"돈 없는 사람만 모됐는데, 그골로 생명 보중하고 이레 살았죠. 누가 디레다 보면 구신 사는 데지 허허. 지금은 꾸며져가 있으니까, 이레 멋진 동네가 됐지마는."

마을 사람 몇 더 만나보니, 가난했던 시절의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지금이야 반듯하게 상가가 조성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아픈 것이었다.

"이 동네 사는 사람 이유 없이 고통 받아요. 무허가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법원에 가면 전과가 이만합니다."

격정에 찬 목소리로 들린다. 여럿에게 물어 마을 내력에 대해 가장 잘 안다는 장정자(77)씨를 찾아간다. 그러나 장씨로부터 들은 것은 마을의 내력이 아니다.

"그래도 부처님 도량에 사는 거, 참 영광스럽게 참 좋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덕에 먹고 살고, 부처님 덕분에 고른(올바른) 사람 돼 가요. 전에는 늙은 사람들 자식이나 빌러 땀고 복이나 빌고 그랬지. 불교에 대한 법이나 알았습니까. 빌어서 모든 일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어, 혼자 생각이 되더라고. 다 자기한테 있는 거지."

행여 다시 태어난다면, 아무 인연도 없고 부처님 인연만으로 용맹정진하고 싶다는 장씨. 보살님께 합장하고 인연을 되새기며 절로 향한다.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드나든다. 주차장을 지나자 일주문이 보인다.

범어사 일주문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나란히 선 네 개의 돌기둥 위에 배흘림 나무 기둥이 받치고 있는 일주문. 제 무게로 제 안정을 찾는 우리 건

축의 독특함이 돋보인다.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 금정산 범어사(金井山 梵魚寺)라는 짧은 글귀 안에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글씨는 1912년 해사당(海蛇堂) 스님이 썼다. 범어사 일주문은 따로 이름 하여 조계문(曹溪門)이라 부른다.

일주문 지나면 천왕문, 천왕문 지나면 불이문이다. 문을 하나 지날 때마다 계단을 올라야하는 것은, 산지 사찰의 전형적 모습이다.

불이문에는 조계종 종정을 지내셨던 동산 스님의 글씨라는 주문이 눈에 띈다. 불이문 지나 높다란 계단에 오르면 보제루다. 천왕문에서 보제루에 이르는 길은 오르막과 계단뿐이다.

계단을 올라도 보이는 것은 보제루뿐이다. 절은 보제루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또한 누각임에도 불구하고 나무판자로 벽면이 다 가려져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건물로 일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보제루를 돌아가면 심검당이 나온다. 묵은 지붕 기와 사이에 은빛 풀이 자라고 있다.

보제루 모퉁이를 돌아서니 환한 절 마당이 보인다. 사람들이 야단법석(野壇法席)을 이루고 있다. 대웅전 앞의 조그마한 삼층 석탑(보물 제250호)과

석등이 천년 세월을 담고 있다. 미륵전과 비로전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대웅전에서 왼쪽은 관음전이고 오른쪽은 지장전이다. 이러한 사찰 배치는 특별한 원칙에 근거한 것 같지는 않다.

나한전 앞에 기세 좋은 향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나무의 속을 살펴보니, 흠뿔이 아니다. 이끼와 산일엽초 등이 나무 몸에 뿌리를 내어 살고 있다. 지장전을 나와 휴휴정사로 가는 골목에 선다. 한참 앞에 걸어가면 보살의 뒷모습이 맑다. 시나브로 가을로 가는 기린초를 뒤로 하고 걸음을 옮긴다. 나무문에 그려진 금강역사상은 평범한 솜씨가 아니다. 그런데 그림의 바탕이 된 나무문이 훼손되어 있어 안타깝다.

술술으로 들어서니, 금정산에서 흘러내린 벽계수(碧溪水)가, 세월은 불잡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물에 손을 대니 그 마을이 내게 전해져 나옴처럼 천천히 세월 따라 흐른다. 머무는 동안 죄 짓지 않고, 누군가의 귀를 씻어주는 물소리처럼 살았으면... 산문을 나서는데, 산문으로 들어가는 한 스님의 뒷모습에 물소리가 아리다.

부산=이대홍(사진·본지 객원기자)

놀라운 건강법! 氣血순환법 강좌

www.chgg.co.kr

고혈압, 동맥경화 걱정없다.

고지혈증, 허혈성심장질환, 부정맥, 심근경색, 만성두통, 수족냉증, 불면증, 우울증, 하지정맥류, 생리통을 氣血순환법으로 날린다.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5일이면 OK!

진통제 없이는 살수 없는 수십년된 만성두통 5일이면 쾌유! 5일안에 쾌유되지 않으면 수련회비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 氣血순환법은 -

도가에서 수천년간 비전되어온 수련법으로써 몸 안에 최대한의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시켜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한 혈관 조직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숨이 차지 않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피를 맑게하여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 氣血순환법강좌 안내 -

5일 코스(12시간 완성)
오전반 : 10시 ~ 12시 30분(월~금)
오후반 : 14시 ~ 16시 30분(월~금)

※ 지방지회 모집중 ※

1993년 창립 천일 의학기공 본회: 02)3436-3206~7

천일 의학기공을 만나는 날은 행복하는 날입니다.

- 창립 15주년 특별이벤트 -

수련회원에 가입하시면
○정화기 무료 증정!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놀라운 반지!
강력하고도 놀라운 '태양에너지'반지를 증정!

북한에서는 이 반지를 빛삼(빛의 산삼)반지라고 부르며 사향보다도 더 효과적이라고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과학영화를 통해 소개한 ○정화기!

《메스컴보도》

MBC통일전망대, KBS일요스페셜, 연합뉴스, 문화일보, 조선닷컴, 동아닷컴, 내일신문, 한국경제신문 보도

※반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도 손쉽게 몸에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에 뜻은 있으나 시간이 없으신 분은 먼저 회원에 가입하시고 반지를 받아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 수련을 받으셔도 됩니다. (회원증 발급)

※전화로 신청하시면 반지나 팔찌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